

# 합당안 통과 낙관 못해 전당원투표·중앙위 의결 편법 동원

## 국민의당 2·4 전대 취소?

국민의당이 지난 3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합당안을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합당안의 전대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4일로 예정된 '2·4전대'에서 합당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워지자 '합당에 관한 사항은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기존 당헌을 개정해 우회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합당에 반발하며 민주평화당 창당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실행에 옮긴 반대파 측은 '꼼수 합당 추진', '아프리카식 독재 정치'라며 안철수 당대표를 비롯한 합당안 성패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설(16일) 전 합당 완료라는 목표 완수를 위해 정상 루트가 아닌 사실상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안 대표의 다시 한 번 역풍을 맞닥뜨리게 됐다.

## 안철수 "중재과 합류하면 2월 13일 대표직 사퇴"...중재과 "불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31일 조기 사퇴를 주장해온 중재과 관련, "중재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 (통합에) 함께 해준다면, 2월13일에 통합신당 창당을 완결시키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당혹감을 보였고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은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중재과는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서 통합 전반으로 나뉜 국민의당 내부의 세력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이번엔 조건부 사퇴 발언...안철수의 잇단 말 바꾸기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잇단 말 바꾸기가 논란이다.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과 몇 개월 사이 자신이 내뱉었던 발언을 뒤집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중재과 의원들이) 함께 추진한다면 신당이 창당되는 날인 2월13일에 통합을 완결시키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중재과 의원들이 통합정당에 함께한다면', '통합 완결 후'라는 조건을 내걸고 대표직 사퇴를 언급한 것이다. 이날 안 대표의 '조건부 사퇴' 발언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 설 전 합당 위해 우회로 모색

### 이중당적 돌출 변수도 작용

### "안철수 쇼"...반대파 맹비난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당무위에서는 우선 현재 당헌에 '전대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며, 이 경우 중앙위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4일 전국 23곳에서 분산해 개최하려 했던 전대는 취소하고, 대신 중앙위를 열어 이같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이번 당무위의 결정사항이다.

당헌이 개정된 뒤에는 전당원 투표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앙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 5일 전당원투표를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당의 상대방인 바른정당이 5일 전대를 열어 국민의당과

의 합당안 의결을 처리하기로 밝힌 상황이어서 안 대표를 비롯한 합당안성과 측은 시간을 더 걸 형편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대표당원 가운데 1000여 명이 합당반대파의 민주평화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려 이중당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전대 준비를 주관하는 전준위가 기존 내내 전대 준비를 마칠 수 없다며 '당무위를 열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해와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민평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대표당원을 속아내 투표권(의결권)이 있는 대표당원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이날까지는 불가능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전준위의 요청이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는 전대 5일 전까지 의결된 것은 대표당원의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대를 연기하지 않고 이 규정을 발미삼아 전대를 취소하는 대신 전당원투표, 중앙위 의결이라는 우회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게 통합반대파 측 설명이다.

안 대표로서는 지난 1월 15일 대표당원

자격요건 조정을 위해 당규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당헌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찾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특히 안 대표를 향한 합당반대파의 비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의원은 2·4 전당대회 취소와 관련, 안 대표를 겨냥해 "아프리카 독재국가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당 전당대회 취소라니 역시 안철수쇼는 가히 아프리카 독재국가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X판 정당정치가 가능한 당은 안철수 사당인 국민의당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불법 당규 개정도 모자라 전당대회 고유 권한인 합당을 중앙위원회에서 대신 의결하는 것은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와 대표당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당법 위반이자 민주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 '민평당' 창준위 중앙위 회의

지난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사퇴를 만류한 많은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제 사퇴가 더욱 많은 분이 함께하는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그 선택을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위와 관계없이 전면에서 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통합의 다른 한 축인 바른정당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분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회의 직후에는 '신당 지도부 문제' 등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평화당(민평당)은 안 대표의 사퇴 의사표시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안철수식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중재과는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1일 오전 회동에서 향후 거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일단 오는 1일 오전 회동을 갖고 향후 거취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소녀의 사랑과 강아지의 충심 손에 잡힌 듯



(214) 소녀와 강아지

얼마 전 친한 친구의 강아지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아 대학 동물병원에서 하룻밤 입원하고 퇴원하던 길에 동행한 적이 있다. 하루 입원료가 150만원이라고 하여 많이 놀랐다. 몇 개월 치료해야 나올 수 있단니 말 못하는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안쓰러운과 함께 '반려동물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절감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능할 수 있다"고 했던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서 오늘날 섬세하고도 다양한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적 복지와 관심이 요구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가 황금기 때 해여서 그런지 개와 인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살갑게 다가온다. 1만년 이상의 시간을 지속해 온 인간과 개의 오랜 동거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강아지의 이미지는 작품에 풍부하고 따뜻한 감성을 더해주는 것 같다.

영국의 초상화가이자 미학자였던 조슈아 레이놀즈(1723~1792)의 '소녀와 강아지'(1790년 작)는 우리가 좋아하는 벗이자 가족의 일원으로서 강아지의 모습을 가장 사랑스럽게 표현한 작품인 것 같다. 강아지를 부드럽게 가슴에 안고 있는 어린 소녀의 들뜬 마음은 복숭아 빛 뺨으로 나타내고, 그 품에 안긴 강아지의 순한 눈동자가 그치지없이 애뜻하다. 자기 자신보다 소녀를 더 충직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가 강아지의 표정에서 전해진다.



조슈아 레이놀즈 작 '소녀와 강아지'

청각 장애가 있었던 레이놀즈는 그 때문에 오히려 묘사하는 대상을 더 민감하고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모델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꿰뚫어볼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왕립아카데미에서 정기적으로 '담화'를 발표해 당시의 중요한 예술비평의 흐름을 이끌었던 레이놀즈는 해박한 이론가답게 그림의 표현양식을 끊임없이 다양하게 실험했던 화가로도 유명하다.

<광주비엔날레랑래꾸플리무부장·미술사 박사>

## [무안공항 출발]

# 일본(기타큐슈, 시라하마, 돗토리),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특가상품(일요일 출발)]**  
 북큐슈 특급호텔 1박+온천펜션 1박 **499,000원**~  
 북큐슈(벳부, 후쿠오카, 기타큐슈)  
 ...**[실속]** 579,000원 ~ **[폭격]** 749,000원~  
 야마구치(하기,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실속]** 699,000원 ~ **[폭격]** 769,000원~  
**설 연휴 매일 출발 합니다.[2/14(수)-2/20(화)]**  
**[폭격] 북 큐 슈 998,000원**~  
**[폭격] 야마구치 998,000원**~  
**야마가세 온천별장 699,000원**~

###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2018. 1. 5(금) ~ 1. 26(금)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898,000원**~

### 무안 ↔ 돗토리

2018. 2. 15(목) ~ 3. 1(목)

주 3회 출발 / 토요일(3박4일) 화, 목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돗토리(12:20) / 돗토리(13:00) → 무안(14:20)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3일 **[실속]** 588,000원 ~ **[폭격]** 678,000원 ~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이즈모) 4일 **[실속]** 768,000원 ~ **[폭격]** 828,000원 ~  
**설 연휴 단, 하루! [2/15(목)-2/17(토)]**  
**[폭격] 돗토리, 요나고, 마츠에 3일 1,098,000원**

### 무안 ↔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운항일 기준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립·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골프] 다낭 GOLF 54홀**  
 3박4일(화) **1,199,000원**~ / 3박5일(금) **1,2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2003-1호  
● 공동조: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상품: 1인만, 국내상품 5인만만), 관광진흥법(가맹)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보험(기,사/기,도) 분사, 선박관광, 각종 비보험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대표전화: 062-234-3222  
**조이투어** F A X : 062-234-3141  
JOY TOUR CO.,LTD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